

목회서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밀도가 높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 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시험은 진위를 분별하는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이 시기를 지나는지에 따라 앞으로 교회가 대한민국에 건강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담임목사로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시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불신앙이 아니며,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에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것은 신앙인의 도리이지만,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의 지혜는 위험을 피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비대면예배’라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대체하는 도구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나 되어 예배드릴 수는 있습

니다. 이미 곳곳의 오지에서 홀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CGNTV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왔습니다.

둘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때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기의 때에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우리는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다면 나의 옳지 않은 선택이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며 예방적 차원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주변에 계신 어려운 장애인, 홀로 외롭게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노숙인 지체, 경제적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등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셋째,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의 여론은 보이는 현상으로 쉽게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때로 정죄 받았던 이들이 후에 억울한 피해자로 드러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감염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 받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까

지 한국 교회가 보여준 섬김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생각할 때 이 같은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함으로써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구성원과 다투는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더욱 겸손한 태도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때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의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의 기간에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생활에 더욱 힘쓰고,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와 순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 드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철저한 방역, 더 안전한 교회

온누리교회가 지난 8월 19일(수)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도 보호 및 사회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모든 예배를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드려야 한다. 월요치유집회, 경배와찬양, 금요회복예배, 금요철야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는다. 성도들의 영성관리를 위하여 CGNTV에서 방영되는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지침 이상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이어오고 있다. 바코드, QR 코드, 수기작성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도들의 온누리교회 출입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성도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 출입기록 확인 외에는 열람하지 않으며, 온누리교회 출입 이력은 4주가 지

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있고, 비접촉 체온감지기, 분사형소독기, 향균필름, 얼굴인식형 체온감지기 등을 도입했다.

지난 19일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영상예배로 전환되어도 교회의 방역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철저한 방역, 더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장규환 장로는 “온누리교회 시설 전체 방역을 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개인영성관리를 위하여 성경을 필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사역공동체에서는 코로나19로 가

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가정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실시했다. 여성사역본부는 ‘마리아행전123’ 기도문자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발송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진행했다. 대학청년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여호수아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프로젝트 온맘통독(성경읽기)을 진행하고 있다.

한세진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양육MC)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고립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경숙 권사(가정사역공동체)는 “매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반목과 비판, 정죄보다 자중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권면했다. 당회서기 정진호 장로(OCC공동체)는 “온누리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예배를 드린 것은 물론이고, 미래준비세미나 ‘뉴노멀, THE NEXT?’, 차세대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이슬람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다. 알라와 무함마드에 대한 복종인데 그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한다. 스르자 트립 코비치는 “이슬람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전체적 방식이며 그 자체가 세계관인 사회적, 정치적, 법적 체계”라고 말한다. 즉, 이슬람은 종교일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온전한 세계관이라는 뜻이다. 이슬람 세계관을 형성하는 다섯 개의 기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일신론). 둘째, 무함마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뒤를 잇는 최후, 최고의 선지자이다. 셋째, 신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창조하셨다. 넷째, 코란은 신의 온전한 최후의 계시다. 다섯째, 각 사람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의 기둥 위에 모슬렘이라면 반드시 지킬 5가지 행동강령이 있다. 첫째, “신은 알라뿐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신앙고백을 반복해야 한다. 둘째, 모슬렘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살라트)해야 한다. 셋째, 라마단

기간 중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 금욕해야 한다. 넷째, 가난한 자에게 수입의 2.5%를 내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능력이 되는 사람은 메카로 순례여행을 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여섯째, 성스러운 전쟁(지하드)을 수행해야 한다. 지하드는 원래 죄와 악을 대항하는 개인적 싸움을 의미하였으나 무함마드가 이슬람에 대항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전쟁도 성전(聖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무자비한 징계를 통해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호전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세계관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4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슬람 세계관의 답은 코란, 하디스, 수나와 같은 이슬람 경전과 무함마드의 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슬람의 답이다. 이슬람의 알라(신)와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규정된다. 알라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피조세계에 대해 알라의 대리자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했지만, 알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복종만을 요구한다. 알라는 최후의 심판자이기에 인간은 그 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기독교처럼 알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알라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창조주이며 심판자인 알라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종의 정체성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질문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이슬람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덴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은 일어났지만 알라께 벌을 받음으로 해결되었다고 본다.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로, 메카를 그 수도로 하는 믿음의 집단에 도덕적, 지적, 영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완전히 소속되어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무함마드를 통해 계시한 알라의 사리아(법)를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선행을 더 많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율법적, 위선적이기 쉽다.

세 번째 질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이다. 이슬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복음이 없다. 오직 모슬렘 개개인은 알라가 무함마드를 통해 제시한 그 사리아 안에서 순종하면서,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력종교인 것이다.

네 번째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이다. 이슬람도 기독교처럼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상을 믿는다. 모든 모슬렘들은 죽음 후에 알라 앞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모슬렘의 오른쪽 어깨에는 착한 천사가, 왼쪽 어깨에는 악한 천사가 각각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고 있다. 최후심판의 순간에 각 천사들이 기록한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저울 위에 달아서 무거운 쪽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모슬렘 개개인은 율법에 순종적인 온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계시는 칼로 상대를 정복하여 이슬람을 확장하라는 호전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이교도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개종이나 혹은 노예가 되는 선택을 강요한다. 이슬람 국가 밖에서는 자신들만의 사회를 형성하고 사리아로 내부단속을 하여 이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모슬렘 개개인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나, 벗어났을 때 가해질 징계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호전적인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래서 나빌 쿨레쉬는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에서 거짓의 교리에 빠져 있는 모슬렘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묵상: 내가 만나는 모슬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전도를 위해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병원에서 진료에 집중하다 보면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환자의 뒷모습을 보고서야 ‘아, 저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며 후회할 때가 종종 있다.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퇴근하는 날에는 집에 오는 발걸음이 웬지 불편하다. 전도(영혼구원)에는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전도대상자를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집중이 필요하다.

나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낚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년 시절 교회 집사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대부도로 망둥이 낚시를 간 적이 있다. 낚시를 할 때는 낚시밥을 낚시 바늘에 끼워 물에 던져 놓고 물에 떠 있는 찌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찹싸게 낚시대를 낚아채야 한다. 그런데 낚시에 별 관심이 없는 내

가 그 순간을 집중하며 낚시대를 낚아챌 리가 있나. 뒤늦게 잡아 올린 낚시대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전도도 낚시와 비슷하다. 전도는 사람을 낚는 일이다. 그 순간 온전히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수년 전 팔레스타인 빈민촌으로 의료선교를 간 적이 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휴양지 같은 그곳에서 며칠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도 전도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들이 사람을 저토록 성실하게 낚겠다고 생각했는지 제자로 부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전도하신 이후 잡은 물고기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그물을 잡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좋은 양육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 또한 제자로 부르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마 4:18-22).

예수님은 힘들고 피곤하신 중에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피곤해서 쉴 만한 곳을 찾던 중에 사마리아 수기라는 땅에 이르러 과거 야곱이 팥던 우물을 발견하고는 거기 앉으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본 순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목마르니 물을 달라며 여인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정점을 찍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도 예수님은 양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측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환경에서든,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든,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든 매 순간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책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과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합한 시간이며,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람은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문명을 이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남이 이루지 못한 성취를 이룰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끔찍한 죄악을 범해야만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심령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본질은 본래 있어야 될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빗나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상태에서 속하지 않은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이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됐으며, 우리는 누군가와와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간은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려졌다가 되찾은 바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유대인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바쳤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무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모든 무역 상인으로 부터도 막대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세리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

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의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리이고,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도 성공한 세리장 위치에 올랐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pure)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순결한 인생을 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주변에는 그의 위치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남모르는 마음의 아픔, 고통, 외로움, 공허함 속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 그 양심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 또한 생길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뿔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뿔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3~4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중년 남성입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많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본문에서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일어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보면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

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소”라고 사람들을 헤치면서 갈 자신을 없었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숨기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글성경에는 ‘뿔나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앞에 ‘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번역한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 등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가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를 가치 있는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 바늘을 찔러 구멍을 내고, 거기에 올리브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아주 가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무화과나무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리고에는 늘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나무에 기름을 바르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농부로 자신을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조차 우스꽝스럽습니다.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중년의 남성, 잘 알려진 공직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아무도 예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심각한 내면의 문제, 인생의 깊은 위기 속에 있으면 평상시에 관심 가졌던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미 없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의 모습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위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폭발 직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자신의 부정한 삶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환상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돈을 축적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궁금증을 가지

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타난 놀라운 변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 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5~6절).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질 만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 문화적 코드로 해석하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세리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유대인들은 깊이 오래 사귀어도 그의 집에 잘 머물지 않고, 초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관통해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은 있었지만 친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지만 허무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고 친구의 초청을 했을 때 삭개오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도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찾기도 전에 그를 만나려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고 혹은 자신이 추구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실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으며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삭개오에게 회개를 먼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도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어서 내려오너라”고 하신 것까지는 좋을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청년들의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403명 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한 번 교회의 활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사역도 멈춰 섰다. 공동체 예배는 물론이고 매년 떠나던 아웃리치와 FA선교사 파송 등 선교사역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아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현지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 새롭고 아주 특별한 사역이 바로 청년들의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선교사와 자녀가 튜터링 커넥트 수업을 들으며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부터 온누리교회 2020년 아웃리치가 전면 중단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와 회복을 위하여 아웃리치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강지은 자매(갈렙공동체)는 “올해도 꼭 아웃리치를 갈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아웃리치가 중단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섭섭하다”고 했다.

온누리교회의 핵심 선교사역 중 하나인 아웃리치 중단 소식은 강지은 자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밀려오는 아쉬움을 삼키며 코로나19 사태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공동체 온라인 기도회, 공감소비운동 등에 적극 참가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다. 끝까지 선교와 전도를 향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새롭고 아주 특별한 여름선교

선교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계속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도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본이고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 선교지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선교사들의 소식도 뉴스를 통해 종종 전해졌다. 연이어 들려오는 선교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헌금과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도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대학청년부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의 기도와 고민 끝에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가 탄생했다.

미션 커넥트에서는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블레싱 커넥트(Blessing Connect)’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을 가르쳐주는 ‘튜터링 커넥트(Tutoring Connect)’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지

만 작은 도움의 손길과 마음을 나누려는 청년들의 참가신청이 줄을 이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에서 청년 403명(블레싱 커넥트 350명, 튜터링 커넥트 53명)이 참여했다.

공동체별로 선교사들과 소통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들도 실시되었다. 요셉공동체는 텀블러와 에코백, 티셔츠 등 굿즈를 제작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지를 돕는 ‘윙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CH PLUS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유학생과 난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대면으로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안디옥 무브먼트’를 개최했다. W 공동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의 영상 편지와 청년들의 아웃리치 후기 등을 나누는 ‘하트 시그널’을 진행했다.

김민지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현지 선교사님의 기도제목, 말씀, 일상 등을 나누면서 깊이 교제를 할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이긴 했어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고백했다.

이주형 자매(하늘대학부)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선교사 자녀들과 문화언어적 차이, 시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긴 했어도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다”고 간증했다.

미션커넥트 참가자 간증

지난해 교토/오사가 아웃리치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뒤로 올해에도 있을 아웃리치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여름 아웃리치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컸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산발적 감염과 사회적 여파로 일상적인 활동마저 제한되었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의 견고함이 조금씩 무너지고 나태해져 갔다. 그런 내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그걸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웠다.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몇 달을 보냈다. 개인적인 비전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온라인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마침 교토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의 중학생 자녀가 영어 튜터링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

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교육 목회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오랫동안 품어온 내게 이 사역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튜터링 봉사를 해왔고, 꾸준히 파트타임으로 영어 튜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를 아시고 일찍부터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워하며 지난 7월 27일 기쁜 마음으로 온라인 교토 아웃리치 첫 사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교토 아웃리치 이후 다시 만난 학생은 그때 모습 그대로 매우 밝고 의욕이 넘쳤다. 비록 화상으로만 소통했지만 오히려 더 반갑고, 애뜻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았다. 기도로 수업을 열고, 기도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고, 기도로 수업을 마무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다. 같은 시간대 팀장님과 팀원들,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중보기도로 함께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

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수업은 잘 마무리했지만 갑작스러운 나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한 달 동안 해외에 가게 되면서 영어 튜터링 수업 진행이 잠깐 어려워졌었다. 14시간이라는 시차와 해외에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영어 튜터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선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해 나의 상황을 기억나게 하셨다. 나는 지난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육신이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때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다.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바빴던 해외에서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며칠 뒤 영어 튜터링 수업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수업은 알차고 즐거웠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선교사님의 자녀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이나 기도제목을 나눠준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상황, 사회적인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등을 수업시간 외에도 메시지와 이메일로 나누면서 유대관계를 쌓았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나를 통해 흘려 보내주셨다. 위로와 사랑도 공급해주셨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다 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18).

8월 말까지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남은 온라인 교토 아웃리치에서 더욱 놀라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 나정윤 자매(SNS공동체)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신 사명에 순종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홍빈 순장(강동 온누리교회)은 장사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다툼이 잦았다. 두 번이나 소송에 휘말렸다.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악으로, 강으로 그들과 대립했다. 그런 그가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졌다. 매일같이 싸우던 주변 상인들과 이제는 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다. 웃으며 인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점에 가서 물 건도 팔아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한다. 한홍빈 순장이 다툼과 대립의 중심에서 바울처럼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툼과 대립의 중심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강동 온누리교회 한홍빈 순장의 신앙 그리고 변화

한홍빈 순장은 천호 로데오거리 ‘나비쇼핑몰’ (이하 나비몰)에서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다. 한홍빈 순장의 가게는 목이 참 좋다. 나비몰 1층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명당이다. 나비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누가 봐도 그 자리가 최고의 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다.

“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면서부터 온갖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송사도 두 번이나 겪었고, 쌍방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육두문자 써가며 비방하기 바빴고, 가방에 공구를 넣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악한 마음마저 품고 있었습니다. 약다구니뿐이었던 제가 강동 온누리교회를 만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를 살린 건 교회였다

한홍빈 순장은 16년 전 나비몰이 처음 개장했을 때 지하 1층 가게를 임대해서 주얼리샵을 시작했다. 그의 직업은 세공사였다.

“세공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연히 나비몰 근처를 지나가다가 가게 임대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끌리듯 들어와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심만만하게 가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바닥이었다. 장사 시작하고 1년 6개월 동안 수익 한 번 내지 못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아내와 함께 버티며 가게를 일궈나갔다. 그의 노력이 어느 순간 빛을 발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주얼리샵을 1층으로 확대 이전하게 됐다. 그것도 임대가 아니라 자기 가게를 갖게 됐다.

“나비몰 상가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임대 매장입니다. 저는 운 좋게 이 좋은 자리를 매수했습니다. 진짜 가게 주인이 된 날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가게를 갖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주변 상인들이 그가 가게를 이전한 것이 불법이라며 고소(告訴)를 했다.

“주변 상인들이 제가 1층 매장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가 잘 돼서 이전하니까 자기들 밥그릇 뺏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홍빈 순장(강동 온누리교회)이 자신의 주얼리샵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때부터 주변 상인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얼굴 붉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날마다 전쟁이었다.

“아유 말도 마십시오. 삿대질하고, 욕하고... 주얼리 세공 공구를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혹여나 나한테 담비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악으로 강으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재판 2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한홍빈 순장이 승소했다. 이제 아무 문제없이 장사하나 싶었는데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나비몰에 남아 영업하는 분양주와 영업하지 않는 분양주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다.

“2심까지 간 첫 번째 재판도 힘들었지만, 두 번째 재판이 더 힘들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가고, 경찰서 가고, 쌍방폭행까지 벌어져서 저도 상대방도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날이 계속됐다. 그때 그를 살린 건 교회였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네요”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한홍빈 순장을 위로해 줄 교회가 없었다. 당시 한홍빈 순장은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고 있었다.

“설령설령 다니긴 했어도 청년 때부터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습이랑 돈 문제

가 불거지면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를 나와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았습니다. 온누리교회도 떠돌아다니던 교회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강동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1년 뒤에 저도 강동 온누리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도 반신반의였다. ‘이 교회가 정말 다닐만한 교회인가?’, ‘똑같은 교회겠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 의심 때문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던 그때 두 번째 재판이 있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피폐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뜬금없이 아내가 예수제자학교(JDS)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당시 한홍빈 순장은 두 번째 재판에 휘말려 있었고, 쌍방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었다. 그 병원으로 예수제자학교 간사가 면회를 왔다.

“병원까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별 이만한 사람이 다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쓰는 간사한테 고맙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제자학교에 등록했다. 약 1년여 동안 예수제자학교 과정을 들으면서 한홍빈 순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예수제자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해외 아웃리치 가는 걸 보면 ‘참 요란 법석하게도 믿는다’고 생각했고, 여의치 않은 금전적 상황에도 아웃리치를 간다고 하는 아

내에게 ‘그러다 거지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박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제자학교 하면서 해외 아웃리치를 1년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달라졌습니다. 단적인 예가 십일조입니다. 예전에는 십일조를 드렸지만 감사함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였습니다. 막연히 월말에 십일조 하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월말이 되니까 돈 쓸 상황이 생기고 현금 내는 게 아깝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장사를 마감하고 그날 매출의 10분의 1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전에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홍빈 순장의 변화는 그와 대적점에 있었던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회복으로 이어졌다.

“저에게 나비몰은 먹고 살기 위한 사업장에 불과했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정말 힘든 일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대립했던 상인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상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시기, 질투, 적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주변 상인들과 사이가 좋아지면서 교회 나가라고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몇 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도 했습니다.”

달라진 한홍빈 순장의 모습을 그의 언어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 겸손한 그의 고백이 마음을 울린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내 가게가 생겨도 마음이 강박해지고, 분란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나비몰이 많이 변했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 상인들이 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네요’라고 하고, 저에게 고민상담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모두 온누리교회라는 건강한 교회와 믿음이 단단한 순장님들과 지체들을 만난 덕분입니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술한 고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복된 사람 바울 말입니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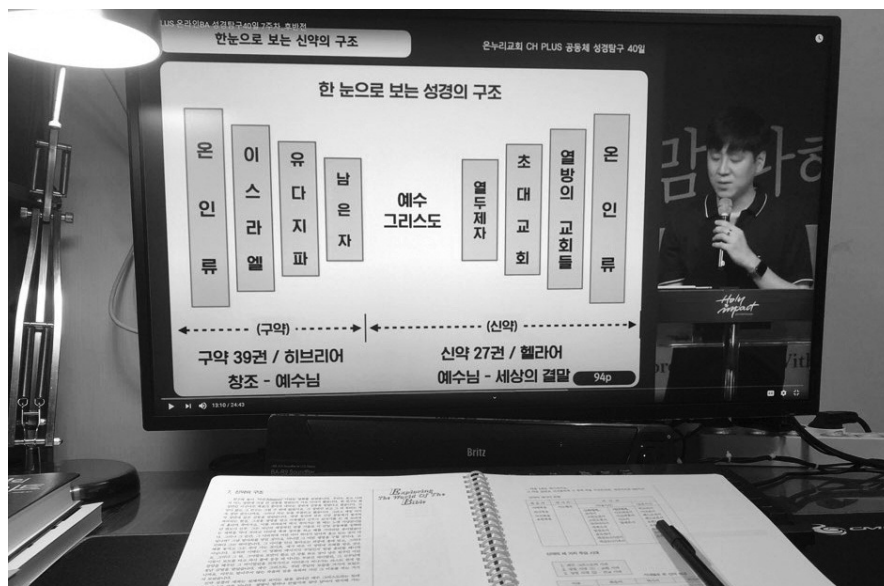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내가 소속된 CH PLUS공동체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나의 삶에 중요한 다짐이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늘 상상 이상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삶 속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 모습을 자각하고 좌절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강좌 광고를 접하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고전 15:58).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강의를 완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한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은혜, 죄의 민감성을 회복해주신 은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영적 갈급함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 무엇보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 이전에 나에게 성경은 너무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담을 주었다. 미시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박세환 형제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탐구 40일'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을 보다보니 미로에 빠져 피로감을 느꼈던 경험도 많았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좀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지리 등 구조적인 관점으로 듣고, 큰 줄기들을 중심으로 들으면서 깊은 갈증이 해소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죄인의 시간, 가장 큰 질병은 방치를 통해서만 자란다.”

성경의 역사 속에 여러 인물들의 죄를 보고 내 안의 죄의 민감성이 살아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 교만, 거짓, 미움, 시기, 질투, 폭력성 등의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한다. 광야의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를 매일 기도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처가 치유된 자가 비전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기쁨이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매일 기도한다. 성령시대, 교회시대, 선교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순간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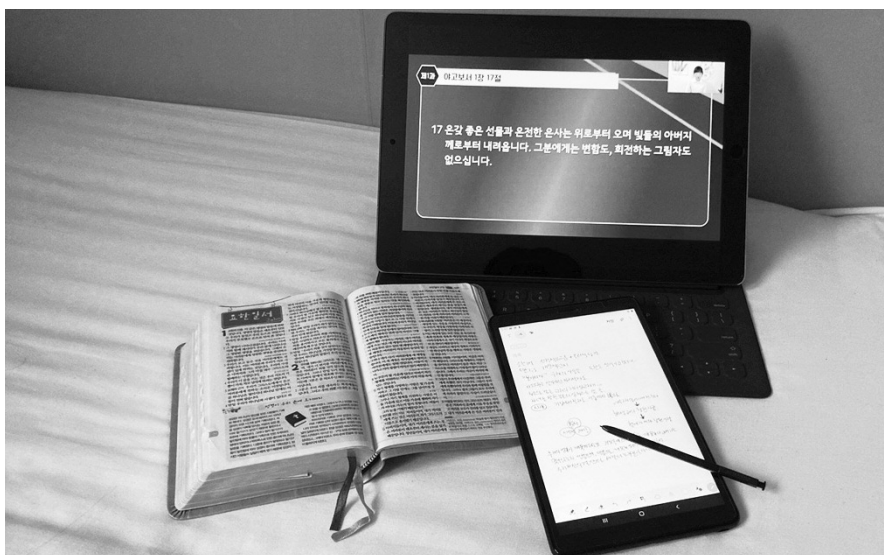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40일 동안의 여정이 얼마나 끝없이 달든지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달콤하고 따뜻했던 시간을 인도해주신 CH PLUS공동체 이서진 목사님, 오현교 전도사님,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박세환 형제(CH PLUS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요한,2,3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간증문을 쓰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어떻게 요한1서부터 3서까지 듣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을 떠올려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수강신청 당시 “무엇을 듣는 것이 제일 편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 저 강의를 저울질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 “요한일서 들어”라고 무심코 던진 말에 기대감이나 간절한 마음 하나 없이 무심하게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 첫 날까지도 뒤숭숭한 마음이었습니다. 의무감을 앞세워 강의에 임했던 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1,2,3서 개관을 듣는 순간 굳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강의로 부르셨다는 확신과 위로가 가득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첫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귀를 통해 형제자매와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편함을 두고 강의를 저울질 하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제 마음 속에는 기쁨과 기대만 가득 찼습니다. 또한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쓰인 요한서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요한,2,3서'를 수강한 김무늬 자매의 강의노트.

신을 보며 저자의 깊은 사랑의 마음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제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만져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형제 사랑하기가 쉬운가요?”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다”고 대답했습

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은 제가 이제껏 가져온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 4:2

0~21).

이 말씀을 보며 제가 말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작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얼마나 크고 깊고, 다채로운지 알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서신 강의를 들으며 매주 암송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움텄습니다. 품고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위로부터 부여지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지체들을 품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서신 강의를 들은 모든 지체들과 여호수아 공동체가 말씀으로 부여지는 사랑을 매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김무늬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주님께 드리는 편지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나는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척박한 시간을 보냈다. 말씀을 붙잡고는 있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생활들,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러웠다.

말라위로 가기 전 나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해주고, 2년 동안 선교비를 보내주던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선교비를 받을 만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단 하나 “저는 죄인입니다” 뿐이었다. 내가 말라위에서 2년 동안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에 돌아와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고 싶었던 것 같다. 결국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에 갇혀 버린 시간들 가운데 W 공동체에서의 예배는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다. 모임 가운데 나누는 한 주간 순원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W공동체에서 기획하는 일에 참여해보고 싶어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신청하



이경하 자매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강하며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게 되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였다.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께 묻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지난 2년 동안 말라위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의 일하심을 돌아켜보았고 그 시간들에 감사했다. 나의 죄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내가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에 대한 예민함을 잊어버려 화인 맞은 내 모습이 보였다. 죄로부터 발버둥 치며 빠져나오기를 간구하고,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들을 분별하고 뿌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의 인생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있

는지를 살펴보면 가끔씩 몰아서 큐티 과제를 했지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 나의 가장 취약점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말씀이 답이었다. 말씀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는 힘이 있기에 지혜가 됨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을, 나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며, 사단이 주는 정죄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녀로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죄에 빠져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동안 좋은 강의로 수고해주신 모든 교역자들과 감사사를 드린다.

/ 이경하 자매(W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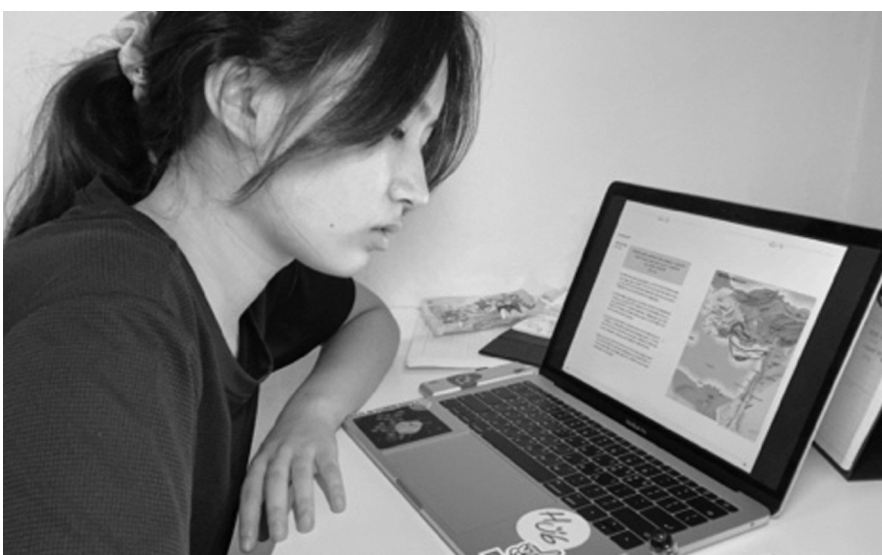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내가 빌립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하지만 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고,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동안 여러 인물보다 한 인물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딱딱하지 않을지, 소통은 잘될지 등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탁월한 강의와 함께 듣는 성도들과의 활발한 채팅이 강의에 재미를 더해주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많은 지혜를 주지만, 정확한 바탕지식 없이는 내용 혹은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에 대한 지식이 없던 나는 바울을 좋아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들으며 바울 사도의 시대적 상황, 배경, 시대적 갈등,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울은 사랑과 겸손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를 구별할 수 있



이명지 자매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들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복음이지 않을까. 세상 모임에도 겸손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한다. 교회 안

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개개인의 마음과 그 마음들이 모여 어떤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다. 치장된 화려함보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듣는 동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 그동안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

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쩌면 진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가끔 너무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았는지 반성했다. 나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처음 하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하시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주신 이우람 전도사님께 감사하다. 전도사님의 재미있고 깊이 있는 강의 덕분에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신앙의 길잡이가 된 것 같아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시기적절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성경 속 귀한 이야기들을 듣고 배웠다.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리라.

/ 이명지 자매(허브공동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간증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일독을 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나에게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가까이 있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안개에 덮인 기분이 들었다.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완독하는 것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성경일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To do list’에 성경통독하기를 포함하게 되었다.

때마침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온맘통독’을 시작했다. 온맘통독은 2020 여호수아공동체 성경읽기 플랜이다. 말씀 안에 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학기 동안 여호수아공동체가 다 함께 매일 성경을 읽는 플랜이다. 1학기(1월 20일~3월 8일) 모세오경, 역사서 2(여호수아, 사사기, 룻), 2학기(3월 16일~4월 26일) 역사서 2(사무엘서~에스더), 3학기(5월 4일~6월 14일) 시가서, 4학기(6월 22일~8월 9일) 선지서, 5학기(8월 17일~10월 11일) 신약을 읽는다.

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말씀을 선포하며



여호수아공동체 김민지 자매가 온맘통독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온맘통독을 시작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된 성경읽기를 통해 원죄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켜보게 되었다. 역사서를 지나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처음에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가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4학기 선지서는 무게감 있게 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선지서를 읽으면서는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도 힘든데, 설상가상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야 하는 걸까?’를 생각했다. 내 성격대로 고민이 먼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내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 해당 말씀인 다니엘서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다니엘은 고난을 받는 현실 세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해당 구절들을 읽으며 나에게 닥친 상황들에 대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상황도 해결이 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 12:3).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잊게 된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조금씩이지만 날마다 느끼게 된다. 이제 5학기 온맘통독 신약을 읽어야 할 차례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5학기 온 맘 다하는 온맘통독이 되기를 소망한다.

/ 김민지 자매(여호수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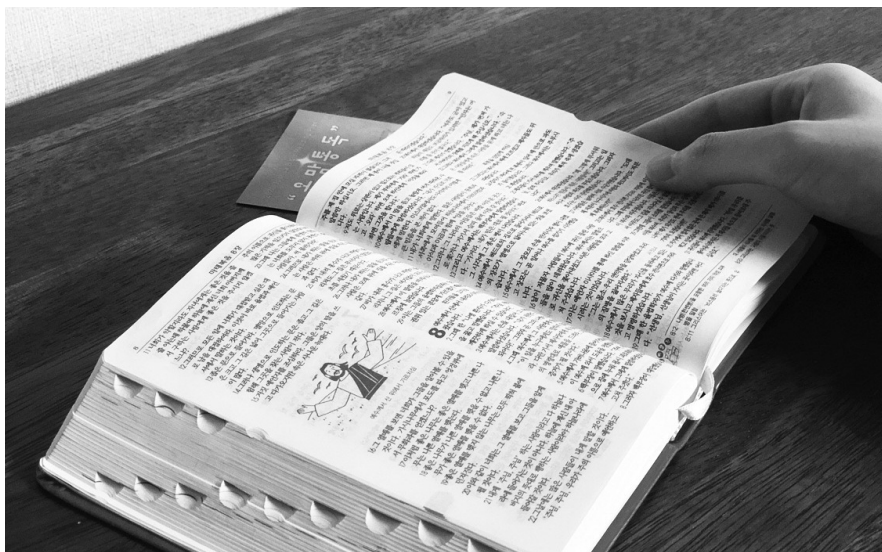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간증

‘온맘통독’이 힘을 발휘했다!

여호수아공동체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공동체가 다함께 성경을 읽는 ‘온맘통독’을 시작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5학기 일정으로 여호수아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 온맘통독을 하면서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전해들었던 삶의 고백들과 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다.

처음 온맘통독을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이었다. 청년들에게 온맘통독 책갈피도 나눠주는 등 설렘이 가득한 마음이었다. 그러다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갑자기 찾아왔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와 공동체로부터의 고립감으로 힘들던 그때 온맘통독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우선 말씀이 주는 위로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었을 당시 온맘통독 일정은 여호수아 편이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네



한세진 자매가 ‘온맘통독’ 성경읽기를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수 1:9)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기 또한 주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 된다는 확신을 주셨다.

또한 온맘통독을 통해 상황적, 심리적 고립감을 떨치고 일어날 힘을 얻었다. 매일 아침 그날 함께 읽을 말씀 범위가 여호수아공동체

11개 그룹과 각 순을 통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됐다. 말씀을 읽은 후 그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한 구절씩 공유하며 은혜를 나눴다.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하나로 단단히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공동체의 힘이 느껴졌다”는 고백을 했다. 지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광야 같

은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 우리를 위해 온맘통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온맘통독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지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와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해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기대되었고, 항상 동일하게 나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의 일정대로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 통독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뭔가 허전하다는 어느 지체의 고백처럼, 온맘통독이 끝난 이후에도 말씀이 없는 하루는 너무 허전해서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한다. 온맘통독을 예비하시고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 한세진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카멜레온 기독교
딕 카이즈 저 저 | 국제제자훈련원
| 9,000원

내가 건강하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자신의 방도 치우고, 더럽혀진 옷도 빨고, 주변의 쓰레기도 치우면서 주변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

나 내가 병이 들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기 어렵다.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입다 만 옷들이 쌓여 가도, 주변을 치우고 변화시켜 나갈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결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변화를 일으킬 힘을 통해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건강하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건강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지닌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건강을 ‘예언자적 변혁(prophetic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강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두 교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는 ‘카멜레온 교회(chameleon church)’다. 이 교회는 주변 색깔에 맞춰 자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의 모습을 지닌 교회를 말한다. 이런 교회는 자기 본연의 색깔을 잃은 채 주변에 동화되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여기에는 예언자적 능력이 없다. 자기가 속한 주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소금이 자기 본연의 맛을 잃어 음식 맛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빛이 자기 본연의 빛을 잃어 어두운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또 하나는 ‘사향소 교회(musk-ox church)’다. 이 교회는 주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향소 같은 모습을 지닌 교회를 말한다. 이런 교회는 자기 본연의 색깔만 가진 채 주변과 단절되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여기에도 역시 예언자적 능력이 없다. 자기가 속한 주변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변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결정은 늘 옳고 주변만 잘못되었다는 집단주의와 교회주의에 빠져 있기에 자기 변혁의 힘을 갖지 못함으로써 주변 변화의 힘을 갖지 못한다.

저자는 이러한 양극화된 타협과 단절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지니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한다.

하나는 변증이다. 이것은 단절된 사향소 교회의 모습을 극복하는 길이다. 주변에 개방되어서 대화하는 교회는 변증의 힘을 지닌 교회다. 변증의 핵심은 상대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되,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대화이고, 변증이 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다. 이것은 타협하는 카멜레온 교회의 모습을 극복하는 길이다. 주변과 구별되어서 고백하는 교회는 공동체의 힘을 지닌 교회다. 여기서 공동체의 핵심은 갈등과 사랑이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간의 매너를 지키는 단계에서 갈등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 갈등을 극복하는 사랑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변증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근본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즉, 수직적 차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지 못하면, 수평적 차원인 변증과 공동체는 살아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변증과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자신을 변혁하고, 주변을 변혁해 나가는 예언자적 힘을 가진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넷플릭스(NETFLIX)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화

믿음으로 난관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



‘미라클 프롬 헤븐’
(Miracles from Heaven)

작됐다. 크리스티 빔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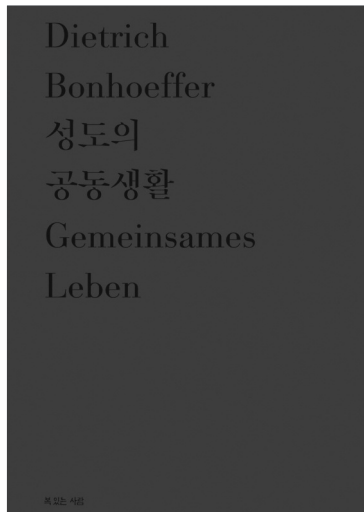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참담하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써보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럽다.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딸의 질문에 입을 열 수조차 없다.

사랑하는 남편, 세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크리스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한다. 둘째 딸 애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으로 불룩 튀어나온 애나의 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의사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다. 남편은 “오직 믿음만이 애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위로한다. 크리스티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크리스티와 가족들은 믿음을 놓지 않으려 4년 동안의 긴 씨름을 한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다.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Miracles from Heaven)’은 크리스티 빔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

CGNTV 복음책방

공동체의 본질을 생각하다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히 본회퍼 저 | 복있는사람
| 12,000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복음책방 MC)는 이 책을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성도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교회와 성도는 왜 공동체를 이뤄야할까’,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책이 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태어난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나치의 감시 아래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성도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는 독일이 패망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독일이 승리하는 길이다. 세상 속에서 원수들과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또한 본회퍼는 기독교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라고 설명하면서 “날마다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과정 개강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 신설

온누리교회 하반기 양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은 공동체별 OBC 과정, 캠퍼스별 필수 기본 과정, 캠퍼스별 선택 과정,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별 OBC 과정, 캠퍼스별 필수 기본 과정, 캠퍼스별 선택 과정은 온라인 실시간 강의 혹은 영상 강의로 실시된다.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양육본부 유튜브에서 열린다. 실시간 강의(ZOOM)는 공동체에서 접속 URL을 받으면 되고, 유튜브 영상 강의는 공동체

양육총무로부터 영상 URL을 전송받아 수강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양육본부에서 학사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준다.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모두 8개 과정이 신설됐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영성 실천’을 목표로 개설된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소속 캠퍼스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

특강주제는 지혜로운 창조신앙(9월 4일 개강), 다음세대 자녀교육(9월 4일 개강), 온누리

전도학교(9월 11일 개강), 돈 ‘Money Matters to God’ (9월 11일 개강), 성경적 가정관(9월 11일 개강), 공감과 소통(9월 11일 개강), 크리스천 리더십 코칭(9월 11일 개강), 그리스도인의 결혼(9월 11일 개강)이다. 강의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육본부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

아이스쿨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양육본부’를 검색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신청이 마감되어도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02-3215-328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0 하반기 온라인 공동체 개강예배

캠퍼스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캠퍼스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가정사역	9/4(금) 오후 8시 유튜브	양재	강남A	8/26(수) 오후 8시 웹엑스
	강서	8/28(금) 오후 8시 시스코		강남B	8/27(목) 오후 8시 줌
	강촌	9/10(목) 오후 8시 유튜브		강남C	8/28(금) 오후 8시 유튜브
	고양은평	9/5(토) 오후 7시 줌		강남D	8/28(금) 오후 8시 유튜브
	관악금천	8/28(금) 오후 8시 30분 시스코		강남E	8/27(목) 오후 8시 웹엑스
	광명	8/29(토) 오후 4시 줌		경기A	8/30(주일) 오후 5시 줌
	김포	8/30(주일) 오후 5시 유튜브		도곡	8/28(금) 오후 8시 웹엑스
	노원	8/28(금) 오후 8시 줌		분당A	8/26(수) 오후 8시 줌
	동대문중랑	9/4(금) 오후 8시 온라인 개강예배		분당B	8/28(금) 오후 8시 웹엑스
	동작	8/27(목) 오후 8시 30분 시스코		서초A	8/27(목) 오후 8시 웹엑스
	마포	8/27(목) 오후 8시 유튜브		서초B	8/28(금) 오후 8시 줌
	북누리	8/30(주일) 오후 6시 유튜브		서초C	8/28(금) 오후 8시 웹엑스
	서대문	9/4(금) 오후 8시 시스코		서초D	8/29(토) 오후 8시 줌
	서빙고	9/4(금) 오후 8시 유튜브		송파A	8/28(금) 오후 8시 웹엑스
	성동광진	8/28(금) 오후 8시 줌		송파B	8/28(금) 오후 7시 30분 줌
	성북	8/28(금) 오후 8시 30분 시스코		양재	8/26(수) 오후 7시 30분 줌
	신용산	8/29(토) 오후 8시 시스코		푸른누리	8/28(금) 오후 8시 줌
	양천	8/28(금) 오후 8시 웹엑스		하모니	9/3(목) 오후 8시 줌
	여의도	9/4(금) 오후 8시 유튜브		브릿지33+	방학 없음
	영등포구로	9/3(목) 오후 8시 유튜브		Point5	9/4(금) 오후 8시 줌
	용산	9/4(금) 오후 8시 줌	부천	-	각 공동체 자체진행
	이수	8/27(목) 오후 7시 유튜브	수원	공동체연합	9/2(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이촌	9/3(목) 오후 8시 줌	대전	공동체연합	8/28(금) 오후 8시 유튜브
	일산	8/30(주일) 오후 8시 유튜브	남양주	공동체연합	8/26(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중종로	8/28(금) 오후 8시 30분 시스코	평택	공동체연합	9/2(수) 오후 7시 30분 시스코
	천양사역	8/29(토) 오후 8시 유튜브	인천	서누리/동누리	9/4(금) 오후 7시 30분 줌
	특별한 초대	9/6(주일) 오후 5시 시스코	미추홀		9/4(금) 오후 8시 줌
	한강	9/11(금) 오후 8시 유튜브	강동	믿음/말씀	8/28(금) 오후 8시 줌 / 8/27(목) 오후 8시 유튜브/시스코
	OCC	8/27(목) 온라인 공동체 순개강	양지	동누리/서누리	8/30(주일) 오전 11시 30분 유튜브 / 오전 9시 유튜브

행복드림콘서트 잠정 연기

오는 8월 24일(월) 열릴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두 달 후로 잠정 연기가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확한 재개 날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 개설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생명의 삶〉,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공동체 양육과정 필독서, 담당목사 추천 도서 등을 판매한다.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도서를 12,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온라인 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 또는 큐알 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으로 치료 중인 수라즈 바셀.

NGO 더멋진세상 네팔 긴급구호 실시

폭우 피해 교회, 목회자 자녀 의료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구호에서는 네팔 중부 산악지역 폭우로 교회 앞마당이 유실되었던 무굴린교회가 더 이상의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웅벽 건축 비용 1,900\$를 지원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네팔 서부 생명나무교회에도 300\$를 지원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고레다라마에 있는 은혜교회

런바하두르 장로의 아들 ‘수라즈 바셀’의 간염 치료비 700\$도 지원했다. 수라즈 바셀은 네팔 치트와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호전 중이다.

NGO 더멋진세상 네팔 사역자는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9월 11일부터 8주간 강의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1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YouTube)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조별 나눔을 실시한다.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온누리전도학교 비전(목표), 최고의 행복 기본전문, 최고의 행복 전문, 최고의 행복 도표그리기, 최고의 행복 전도지, 6-8주 상황별 접촉점과 반대질문 등을 주제로 강의와 훈련이 병행된다. 회비는 1만 5천 원(교재, 필독서, 전도지 비용).

문의: 010-3326-4364

창조과학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8월 30일 온라인(Zoom) 개강

온라인 창조과학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30일(일)부터 9월 27일(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창조과학아카데미에서는 지적설계, 정보이론과 진화론, 공통의 신비, 거대 우주와 우주의 연대, 생명의 설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4658-0987

성경탐구 40일 신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탐구 40일 신약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금)부터 10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YouTube) 강의로 진행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서 순서대로 7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570-7438

37기 TP 훈련생 모집

8월 31일까지 접수

Acts29비전빌리지에서 TP 37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8월 31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류 양식은 Acts29비전빌리지 홈페이지(www.visionvillage.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TP는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에 따라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장기선교사와 협력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를 세우는 훈련이다. 훈련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일정 변경가능).

문의: 031-331-8182

메일: school@visionvillage.org

크리스천과 재정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십일조에 대한 성경적 고찰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크리스천 3명 중 1명은 십일조를 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8명 중에 1

명만 십일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국 교회 역시 비슷한 비율로 십일조를 드릴 거라 보인다.

십일조의 의미는 ‘열 번째 부분’이라는 뜻이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십일조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을 현금하면서 십일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신앙을 떠나서 용어를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사람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말라기 3장 말씀에 의하면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말 3:8-9).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법인 자금을 직원에게 가지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간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다. 십일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던 순종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다.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

십일조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을 것이고, 더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십일조와 자발적인 현금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40년 광야생활 동안 체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했고, 이는 말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 물질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라기 3장에 언급한 것처럼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구절 외에는 없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우리에게 복을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적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아니고 풍족할 때였으니 돈이 없어서 십일조를 하지 못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을 때였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과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일이 더 잘 안되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원하지 않는 지출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앞에서 언급한 말라기 3장 말씀이었다.

주의 백성이 여호와께 ‘기쁨의 드림’

이러한 십일조의 속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따분하고 의무로 가득 찬 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출 36:4-7).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하기 전까지 그들은 열정적으로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구약의 모든 현금과 드림이 신약성경의 연보와 달리 십일조에 국한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일조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자발적 드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기쁨의 드림은 다윗의 고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드소이다...”(대상 29:14, 16-18).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을 뿐 아니라 주의 백성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가령,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신앙교육을 했다고 해보자. 그렇게 용돈을 받아 든 자녀

가 그 용돈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이 십일조를 드리고, 어떨 때는 십일조 이상으로 용돈에서 따로 떼어서 어려운 친구를 위해 돕는다고 하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도 너무나도 대견해서 다음 용돈을 줄 때 더 주고 싶지 않을까? 반대로 용돈을 줬는데 장난감과 필요한 것을 살 생각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는 고사하고 아무런 현금도 드리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십일조, ‘내로남불’ 신앙 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읽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율법주의를 언급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십일조라는 율법을 지금 시대에 강요받는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다.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사들을 지금은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왜 구약에서 드러졌던 십일조 생활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지는 것이 대표적인 반대주장이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명시적으로 신약성경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십일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러지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을 눈을 찔고 찾아봐도 단 한 구절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강조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정의와 긍휼, 믿음이고 ‘저것’은 십일조이다.

무엇보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내면에 십일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십일조 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논쟁하는 경향이 있다. 더 이상 십일조가 내가 안 내면 은혜, 남이 안 내면 율법을 들이대는 ‘내로남불’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십일조가 없어도 모든 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 우리의 물질에 앞서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 27:30).

■ 예봉교회 목사의 간증



/ 정철민 목사(예봉교회)

그들은 예수바보였다

지난 4월 말 코로나19로 한참 경제가 마비 되는 것 같은 시간에 온누리교회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에서 연락이 왔다. 공감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예봉교회에 보내주겠다는 소식이었다. 오랜만에 구리시장을 돌면서 얼어붙은 실물경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발품을 팔아 더 외지고 인적이 없는 곳이나 길거리 좌판에서 전도용품과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 어린이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필요한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6월 말 온누리교회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공감소비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예봉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교회 실내가 어둡다고 느꼈고 천장을 제대로 인테리어하지 못하고 사용해왔다. 그래서 교회 예배실, 카페, 교육실 등의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사용해 온 예배실 천장을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기로 했다.

8월 1일 토요일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그 기나긴 장마의 중심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소망다락방 귀한 형제님들이 예봉교회에 오셨다. 천장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준비

해오셨다. 분진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천장의 석고텍스를 모두 떼어내었다. 온 예배실이 석고면지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10여 명이 넘는 하나님의 일꾼 된 형제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3시간 만에 천정석고를 다 떼어냈다. 방음설비가 붙은 석고판이라 떼어내기가 더욱 어려웠다. 떼어낸 석고 텍스만 해도 40킬로 마대로 35포대가 나왔다. 절로 구슬땀이 흐르고 온 몸에 석고먼지가 하얗게 앉았다.

문득 하루 종일 예봉교회에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수고를 희생하며 일하는 소망다락방 형제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는가? 그들은 예수 바보였다. 예수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희생한다. 그날 나는 조용히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에 들어가 세 번 울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들의 수고가 미안해서, 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바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을 통해 세상은 바보라고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자 간증



/ 김은선 성도(S브릿지공동체)

값없이 받은 은혜

나는 모태신앙으로 10대를 보내고, 못된 신앙으로 20대를 보내다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30대가 되었다. 6년 정도 섬기던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더 나은 신앙성장과 공동체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대일제자양육은 나에게 어려운 훈련이었다.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대일제자양육에서 나와 너무나 비슷한 양육자님을 만났다. 과정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이 큰 나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 다시 교회로 돌아간 후부터 끊임 없이 섬김과 봉사를 해왔다. 물론 사역을 통한 은혜도 있었지만, 나의 행위에 대한 의가 넘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함이 많았다. 그렇게 쌓인 나의 교만이 결국 함께 있는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아버지 갈렙에게 구하기만 하면 흔쾌히 받았던 딸 악사처럼 주님이 먹여주시는 말씀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너무나 쉽고, 편하고, 기쁘게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

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값없이 은혜 받았음을 깊게 이해했더니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슴 깊이 이해되었다.

나는 늘 도마 같은 자라고 생각했다. 의심이 많아서 그 어떤 것도 쉽게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증거와 확증을 구하는 편인데, 주님은 나의 끊임없는 의심을 늘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바란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안에 쌓인 의를 걷어내고, 온전히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대일제자양육 여정을 함께 해주신 권오선 양육자님께 감사를 전한다.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 세례간증



/ 오지선 형제(S브릿지공동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7년 전 나는 한순간에 직장, 돈, 신용, 사람까지 모두 잃고 절망상태에 빠졌다. 평생을 매우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한 번의 넘어짐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해마다가 우연히 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 예쁜 정원이 있는 김포의 작은 교회였다. 처음 교회에 나가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실내를 눈부시게 비추며 내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기뻐 뛰며 순식간에 여러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내 빛과 음성이 사라졌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채 자동차로 왕복 두 시간 거리의 김포교회에 출석했다. 김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회사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고, 삶도 점차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나는 출석하는 교인에 머물러 있었다. 삶이 조금씩 나아지자 마음의 상처가 올라와 다시 죄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내 신앙을 이끌어주던 자매와 친구로부터 온누리교회 내적치유학교 참가를 권유 받았다. 내적치유학교 첫날 강의시간에 다시 마

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주님께서는 “네가 섬길 곳이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작년 10월 주님께서 다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명령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김포교회에서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6개월을 아가새가 동지를 떠나기 전 어미새로부터 비행 훈련을 받듯 훈련을 받았다. 주어진 6개월이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딱 차던 주일, 내 신앙을 이끌어준 자매가 결혼예배를 드렸다. 나는 이제 어미새의 보호 아래 있던 동지를 떠나 새로운 동지를 찾았다. 새롭게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너무도 작고 미숙한 날개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려 한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소망을 올려드린다.

■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간증



/ 안중산 성도(양재공동체)

문제를 푸는 출발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말씀이 믿어져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아이들의 질문과 의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내가 교육받았던 대로 “그냥 외워”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먼저 믿은 내가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아이들은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래도 어렵다. 창조신앙스쿨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될 수 있기에 수업을 들었다.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론이 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우리는 증명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수준 차이

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신앙이 그렇다. 창조가 그렇다.

이 수업을 듣기 전 진화론에 대응하는 창조과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창조과학도 진화론만큼 불완전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쟁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창조가 진화론 수준 또는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감사님께서 “창조과학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진화론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를 이해하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출발선에 섰더니 모든 강의가 내 인식의 수준을 확대시켜 주었다. 물론 아직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경험과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소망해본다.

신앙에세이

권사칼럼

‘함께’라는 연합과 가치

일대일로 세계로!



최대흥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기독교는 개인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명상과 수도생활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고립시키는 종교 또한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함께’라는 연합을 이루어내셨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신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머리가 중요할까 아니면 몸이 중요할까.

스티븐 호킹과 같은 사람은 머리의 기능만을 가지고도 인류에 수많은 족적을 남겼다. 반대로 단거리 육상의 영웅이라 불리는 우사인볼트는 튼튼한 신체만을 가지고 모든 단거리 육상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다. 다시 묻고 싶다.

“머리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몸의 각 부분으로 구분하신 것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 없고, 몸이 없는 머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머리가 몸보다 뛰어난 것도, 몸이 머리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최근 보았던 한 광고가 생각난다. 코로나19

여파로 ‘HOLO’ 시대가 도래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HOLO는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담은 신조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강면역용품(Healthcare), 대용량제품(Oversize), 집콕제품(Life at home)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쇼핑(Online shopping)을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했다. 과거 소비시장을 이끌었던 ‘YOLO’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HOLO가 대세가 되었다.

나는 이 HOLO라는 신조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 YOLO의 원래 의미에 비추어 ‘He Only Live Once(그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뜻을 사용해보고 싶다. 말 뜻 그대로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듯 타인 역시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트렌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YOLO와 HOLO가 아니라 WOLO(We Only Live Once)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 트렌드는 HOLO인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함께라는 연합과 가치를 생각하는 WOLO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자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의 교제권이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또한 갈 곳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본질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가치를 추구해나가면 좋겠다. 혼자가 아닌 같이의 가치를 배워가며, 머리와 각 몸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서정원 권사
(관악전공동체)

일대일사역팀의 월례회를 마쳤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다. 보통 때면 잠을 잘 시간이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다. 마음에 뭔가 설레는 소망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사역팀이 8월 월례회를 위해 모였다. 벌써 넉 달째 온라인 화상 만남이다. 처음 화상회의 때보다 발전된 기술적 조치로 인해 이제는 나의 SNS에 ZOOM(화상모임 프로그램) 초대장이 오면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르고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간다.

지난 3월부터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게 모든 사역이 일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몇 년 전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곧 지나가겠지 싶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두 달을 넘더니 급기야 5월부터 온라인으로 화상 월례회가 시작됐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및 양육자 과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동반자와 양육자가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사역이다. 그런데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첫 번째 화상 월례회는 일대일 사역자들 모두 당황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쳤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어색한 분위기는 일대일사역팀 운영위원들의 열정과 수고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곧 이은 두 번째 월례회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일대일’이라는 주제발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을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 네 분 장로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팀장님들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을 위한 섬김 제안도 이어졌다. 혼란과 어색했던 이전의 화상회의 분위기를 일소하기에 그만이었다. 오히려 이제는 대면이면 대면,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섬김의 폭이 넓어지고 유연해지기까지 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은 온라인으로 이미 졸업반을 내고, 2기와 3기가 진행 중이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수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도 국내를 넘어 캐나다에서도 시작될 예정이다. 일대일사역팀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다양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개설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월례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매달 월례회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왜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야 하는지,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을 일궈가는 모습 아닌가.

‘일대일로 세계로’, 몇 년 전 일대일사역의 구호였다. 지금 다시 외쳐도 손색이 없다. 일대일 구호의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가 가능해졌다. 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무장된 더 유연해진 자세로 일대일로 세계로!

장로칼럼

코로나19와 ‘뷰카(VUCA)’



김지현 장로
(강촌공동체)

코로나19는 언택트(비대면) 사회의 전격적인 도래를 불러왔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변화들은 잠깐 지나갈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당연하고 비합리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관념들이 뒤집히고, 일상적으로 향유했던 것들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급격히 변하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과 ‘모호성’(ambiguity)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 글자를 따서 통칭 ‘뷰카(VUCA)’로

불린다. 뷰카 상황은 기존의 경험이나 합리적 예측, 최적화된 현실 등을 여지없이 흔들며 전혀 새로운 대응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시킨다. 14세기 페스트의 대유행으로 인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이번 글로벌 팬데믹 이후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뷰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해 나갈 방도 역시 뷰카(VUCA)로 정리해볼 수 있다. ‘비전(Vision)’과 ‘충분한 이해(Understanding)’, ‘명확하고(Clarify)’, ‘민첩한(Agility)’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씩 정리해 본다.

첫 번째 비전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비전이 요청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한 가지다. 문자 그대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겪어내야만 할 환란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

지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움의 단서이자 요체는 관계다. 나 자신과 가정, 교회와 국가, 세계와 대자연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다. ‘하나님의 살롬’이 구현되는 그날이 임하실 것을 꿈꾸는 사람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뤄지는 그 비전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심령까지 새로워진 인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다.

두 번째 충분한 이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된다. 질병과 질환은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회복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아프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너무나 분명하게 낙관하고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병든 시대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한 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했다면 비로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위장된 축복이요,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돌아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 각자에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돌이켜야 한다. 더 이상 번성함과 번영함과 창대함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다. 더 높고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을 그치라는 뜻이다.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과 독선과 아집, 그 모든 패망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리라 하시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계속).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삭개오야. 너의 모든 부정한 삶을 회개하고, 네가 축적한 모든 재물을 돌려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리고 거리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삭개오가 어떤 죄인인 줄 안다면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 나옵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아주 진지하고, 율법에 잘 지키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세리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도 아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있는 그대로 맞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행했습니다. 삭개오가 “제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난함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 할 만큼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축적하면서 수많은 동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통해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체면도 잊어버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영혼이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필전 목사님은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해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성애였고, 배고파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고 느끼는 감정이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심정이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별해서 건져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구원하게 돼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음성이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가 쌓아 올린 죄악, 교만, 우상 속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이요, 사랑의 부르심이요, 거룩으로 향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9~10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가지 증거 때문입니다. 첫째,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둘째, 우상으로 섬겼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대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속인 것은 4배로 갚았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자신의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 받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동물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가치로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변상합니다. 변상의 원칙은 손실 원액 원금에 20%를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속건제를 드린다고 할 때 원금의 20%만 더 해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 400%를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의 회복 노력입니다. 그는 아마 배상을 위해서 전 재산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되찾아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삭개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받지 않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은 자신의 모든 방향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길만이 모든 방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 부터는 회복과 인정, 위로와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한 마음을 아시고, 그가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진실을 아시고 아픔을 아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조용히 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모든 나라들을 엄청난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국경과 문명화된 거리들을 순식간에 막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이끌고 있던 모임들이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동의 길이 막히면서 모든 모임이 멈췄습니다. A모임의 멤버들이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서 모임을 멈추게 됐습니다. G모임은 Sk 자매를 주축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함께하는 지체들과 관계에서 마음이 어려워 서로 간의 왕래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그 자매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K모임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축으로 함께했던 형제 두 명의 마음이 변해서 저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영혼보다는 재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생긴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최근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톨을 가지고 K에

있는 새신자 Am 자매와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A모임에 있는 Ms 형제와 주일예배모임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난민으로 간 Pr 가정과도 주일예배모임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성경공부와 예배가 이어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모이는 가정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비싼 비자법에 따라 여행 비자를 계속 발급하는 예외조항으로 저희 가정의 비자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를 하게 되면서 첫째가 온라인 수업으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업 시간들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생활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도 지방의 모임시역이 온라인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G모임의 Sk 자매, K모임의 Am 자매, A모임의 Ms 형제, 미국 Pr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성경공부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재정의 채워지고, 다음 비자발급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방샘물, 김운유 선교사(터키)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꿈이 더해집니다

DREAMON 
드림온플러스

전용 수신기 설치로 CGNTV를 편리하게 시청하세요
예배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6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적 갈급함이 심해지고 있던 때에,
드림온플러스 선물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00 국 B 선교사

99

66

CGNTV 드림온플러스는
사막 한가운데서 샘솟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일본 김미란 선교사

99

66

드림온플러스는
힘든 선교 현장에서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튼튼한 무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이희열 선교사

99



DREAMON 

신청 및 후원 문의 CGNTV 웹사이트 신청 페이지 www.cgntv.net | 문의 전화 02-796-1118



인터넷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CGNTV 시청 가능



한국/미주/일본/중문 채널을
HD 화질로 시청



설치 후 별도 이용 요금 없이
무료 시청



쉽고 간편한
설치와 설정